

관세·내수침체 악재 속 임단협 격화

車·조선 노조, ‘정권공약’ 안고 압박

한국GM 노조 파업 이어 현대차·기아도 이견 팽팽 정년 연장·주4.5일 충돌 성과급 수천만원 격차 커

한국 제조업 대표 산업인 자동차와 조선업계가 올해 임금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노동계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협상 테이블에 함께 포함하며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발 관세 압박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속에서 일부 노조의 부분 파업까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하루 2시간씩 부분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또다시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지난 달 전체 조합원 6851명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88.2%의 찬성률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둘러싸고 좀처럼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월 14만 1300원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15%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의 500% 격려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



(위)지난달 26일 현대차 노조가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앞 광장에서 올해 임단협 승리를 위한 전체 조합원 출정식을 개최했다. (아래)한국지엠 부평공장. /뉴시스

른 성과급과 격려금은 각각 4136만원과 2250만원으로 총 6390만원에 달한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 월 6만 300원 인상, 성과급 1600만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GM은 최근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부과 등으로 경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까지 확대되면서 경영 부담은 커지고 있다. 노조는 사측의 결정에 따라 15일을 기점으로 투쟁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대차·기아도 상황은 비슷하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 이 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주 4.5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만 60세→64세)을 반드시 관철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노사는 지난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사가 15일 오후 진행되는 10차 임단협 교섭

에서 의견을 좁힐 수 있을 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선 업계도 비슷한 상황이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임금 피크제를 없앨 것을 요구하며 사측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기본급 14만 1300원 인상과 성과급 산출 기준 변경 등도 임단협 테이블에 올랐다. 노조는 조선 업계의 정년 연장으로 숙련공 확보에 긍정적인 것으로 주장하지만 사측은 높은 인건비 등의 문제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오는 16일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4시간 파업에 이어 17일과 18일 연달아 7시간 파업을 진행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과 내수 침체 등 위기 경영 환경에서 임단협 교섭 공전까지 겹치면서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며 “만약 기업들이 이같은 위기를 버티지 못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면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GM의 경우 노조 파업에 따른 피해가 확대될 경우 본사에서 생산지를 이동하는 방안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社告



메트로경제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초고령 사회, 자산관리 전략

메트로신문이 오는 7월 22일(화) 오후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금융·부동산 등 자산시장에는 장기 저성장 체질로 바뀐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반영하듯 위기감이 팽배합니다. 경제에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메트로신문은 매년 개최하는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행사의 올해 주제를 ‘늦어지는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으로 준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 자산시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박희운 한국투자신탁운용 솔루션본부장(전무)과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 수석,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이 차례대로 각자의 전문 분야를 위주로 한층 복잡 다양해질 자산시장의 변화를 짚고 안정적·효율적 재테크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 ◆ 행사명 : 2025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 ◆ 주제 : 늦어진 은퇴, 달라진 자산시장 -초고령사회 자산관리 전략
- ◆ 일시 : 7월22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 14:00)
- ◆ 장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 문의 및 참가 신청 : 100세 포럼 사무국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오징어·고등어 최대 ‘반값’ 할인 여름성수기 한우 공급 30% 확대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가공식품 할인 확산에 최선

정부가 오징어·고등어·장어 등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지원을 실시한다. 또 한우 수요가 여름철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공급을 평시에 비해 1.3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 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의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2면> 이 차관은 “최근 폭염에 이은 집중호우 등 기상 영향으로 농축산물 피해와 감자, 배추 등 일부 품목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여름철 가격·수급 변동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 관리하겠다”며 “호우 대비 현장지도와 함께 저수지·과수원·축사 시설점검, 농작물 작황관리 등 수급안

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여름철 기상재해에 대비해 사전에 비축물량 확보를 철저히 하고, 재해 발생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 재개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최근 식품·유통업계가 라면·빵·커피·아이스크림 등 소비자 체감도가 높고 여름휴가철 수요가 집중되는 품목 등에 대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실시해 소비자 부담 경감에 동참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를 지속 발굴·해소해 가공식품 할인행사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7월11일부터 강원 평창을 시작으로 9월까지 전국 각지 약 60곳에서 수산물물 20~30% 할인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순차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AI 목소리로 가족 사칭, 로맨스 스캠, 노쇼 사기까지…

모르면 당한다… 급증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딥보이스로 가족·지인 흉내 로맨스 스캠에 속는 MZ 늘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에 국한됐던 기존 수법 대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인 사칭, 친분이 나 애정을 빙자해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등 수법도 다양해졌다. 젊은 세대에서도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사전에 사기 유형을 숙지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2만839건에 달한다. 2023년의 1만8902건과 비교해 10.2% 늘었다. 평균 피해액도 2370만원에서 4100만원으로 2배 가깝게 증가했다. 이어 올해 1분기(1~3월)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5878건으로, 작년 1분기보다 17%가량 늘어.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 ‘신종 보이스피싱’ 극성 2023년까지 감소세였던 보이스피싱이 다시 급증하는 것은

다양한 기술과 수법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서다. 신종 보이스피싱은 통화나 문자로 기관을 사칭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고전적인 수법과 달리, 유명인이나 가족을 사칭하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입금을 유도한다.

고령자는 ‘딥보이스(인공지능 음성 합성)’를 활용한 가족·지인 사칭 사기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의 일종인 ‘딥보이스’는 특정인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

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으로 악성 앱을 통한 통화 탈취도 가능해져, 디지털 문해력이 낮은 고령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이나 지인의 갑작스러운 급전 요구에 즉각 응하지 말고, 다른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해 확인을 거쳐야 한다. 또한 악성 앱을 활용한 통화 탈취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확인 과정에는 반드시 다른 가족이나 이웃의 휴대 전화를 빌려 사용해야 한다. <2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이진숙 청문회 이틀 앞… 국민검증단, 논문 검증 결과 공개한다 /사진 뉴시스
▲강선우 후보자 “尹정부서 성평등 의식 후퇴, 대한민국 뿌리 흔들러”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해수부 부산 이전 ‘쟁점’
▲주한日대사관 “수교 60주년 한일합동합창단 단원 공모”

▲국세청, 유튜버 21명 세무조사 89억 부과… 후원금 축소신고 등 철회
▲권영세 “인적쇄신보다 여당 독주 막아야…尹 탄핵 반대는 비난 어려워”